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층 지붕 옥상층에서 시작됐고, 사고원인은 철골 구조물의 접합 불량 등을 지목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안전불감증이 만든 참사”...피해 가족 ‘분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매몰자 가족 “전체 붕괴는 부실시공 증거” 의혹 제기 구조당국 구조·수습 활동 종료...현장 남아 안전조치

“안전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46여시간 만에 실종 매몰자 4명이 모두 수습된 가운데, 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

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만난 고성석 씨(60)는 “이번 사고는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결과”라고 절라 말했다.

고씨는 지난 11일 붕괴사고 당시 철근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로 매몰된 고석완씨(69)의 동생이다.

그는 “현장을 보면 용접과 볼트 접합이 부실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시공했다면 테크 부분만

떨어져야 하는데 기둥과 보 등 전체 구조물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밤에는 어두워서 붕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는데 아침에 보니 문제가 심각했다”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후진국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몰된 작업자들의 위치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고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봤다. 매몰된 작업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은 데도 위치 파악과 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그의 옆에는 매몰자 고씨의 또 다른 동생인 대성씨(66)도 눈시울을 붉히며 하

염없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어긋 공사 현장은 부실시공,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곳이었다. 어느 공사장이 입구에서부터 안전통로 하나 없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현장을 돌아다닐 수 있느냐”며 “공사 현장은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앞서 안전사고가 한번 터져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는데 형님은 ‘시공사가 공사를 너무 서두르려고만 한다’는 취지로 자주 말씀하셨다.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서관 설계구조에 대해서도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아래에서 하중을 버티지 못한 것 같다. 중간에 기둥 하나를 더 있어야 했다”면서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시스템 동바리(지지대)를 나중에 설치하는 현

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씨 형제는 “형님은 주변 사람에게 잘 배풀고 애정이 많으셨던 분이다. 너무 안타깝다”며 “현재로써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나.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을 형님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제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4명의 근로자가 매몰됐다.

이후 구조당국은 밤샘 수색 작업 등을 펼쳤고,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께 마지막 실종자인 김모씨(58)가 숨진 채 발견돼 구조대에 의해 마지막으로 수습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접합부분 불량 등 구조적 부실 원인 추정”

건축구조 전문가들 설계 자체 문제·부실시공 의혹 제기 특허 공법 설계 반영...용접 미흡·하중 계산 착오 가능성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두고 건축구조 전문가들은 철골 구조물의 접합 불량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철제 트러스 연결 부위가 매끈하게 끊어져 있는 점을 토대로 용접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공 불량 또는 설계 결함의 가능성. 특허공법이 적용된 건물 구조가 실질적 하중을 견딜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건축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층 지붕, 옥상층에서 시작됐다. 또 붕괴가 이뤄진 2층 지붕 절반은 이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상태였

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타설이 진행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철골 구조물 붕괴는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2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 이번 붕괴사고는 갑자기 끊어지는 형태로 일어났다.

실제 2층 지붕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철골 접합부는 칼로 썰어낸 것처럼 매끈하게 끊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접합부가 콘크리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거나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광주시 안전점검단장)는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봤을 때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위가 ‘칼로 무 썰듯이’ 깔끔하게 절단되기는 힘들다”며 “지탱하는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접합 부분에 대한 보강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접합이 가장 강한 부분이 깨졌다는 것은 구조 설계 자체가 잘못됐거나 콘크리트 양이 설계했던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건축구조 설계 당시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기둥 간격을 48m까지 넓힌 특허설계 구조물로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구조다.

송 교수는 “건축구조에서 48m 경간은 흔치 않은 수준으로, 보통 6~7m 경



송창영 교수

최명기 교수

도의 간격을 쓰는 일반 철골 건축과는 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다”며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부를 현장에서 조립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립 접합 시 접합의 전문성, 세부 점검사항 등이 확보돼야 하는데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장을 방문한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구조수단 교수도 특허공법으로 적용된 구조가 실제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붕괴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일반적인 동바리 사고는

해당 층만 붕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해당 층을 포함해 지하층까지 붕괴됐다”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부분이 사고 당시 타설하던 층을 포함해 나머지 층까지 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특허공법은 시공성, 경쟁성 등은 확보됐을지라도 안전성은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관련 공법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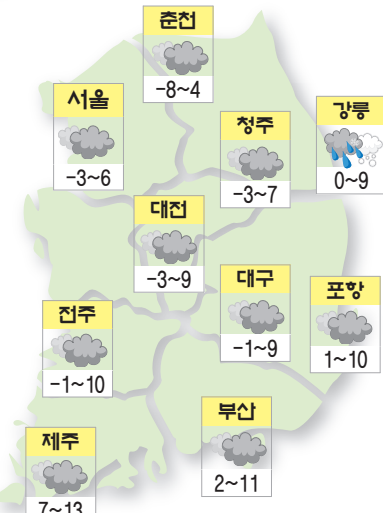
또 최 교수는 “기둥 간 거리가 48m에 달하는 구조에 대해 과거 유사한 시공 실적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며 “광주시 등의 공법 관련 실적 요구와 심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역시 확인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특히 보와 기둥 연결부가 찢어진 현상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뤄 큰 하중을 견디지 못했거나 시공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7:30	달림	03:03
맑음	17:22	달림	14:00



광주		1~10
목포		3~9
여수		2~10
순천		0~10
구례		-1~9
광주		1~11
임도		2~12
목신도		6~11
진남		-2~11
진도		4~10

목포	미물(고)	10:59 / 22:53
	샘물(저)	03:42 / 16:32
여수	미물(고)	06:19 / 17:56
	샘물(저)	12:11 / ---:---

심야 찜질방 화재 100여명 대피

○...심야시간대 찜질방 화재 발생 2시간 27분만에 완전 진화. 당시 건물에 있던 100여명이 대피하면서 연기 흡입, 부상자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246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

소방 당국은 지하 1층 빨래 건조기 연결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휴대전화 갈취·폭행 10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중학교 동급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빼앗은 스마트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10대들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16) 등 10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신웅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B군(16)을 둔기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중고거래로 되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휴대전화를 달리는 자신들의 요구를 B군이 거절하자 지하 주차장에 있던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물건으로 등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A군 등의 신상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군이 올해 8월부터 여러 차례 저지른 동종 여죄의 가담자 1명을 추가로 밝혀내 A군과 함께 구속했다. 임영진 기자

광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재설계해야

시행 3년차...군 단체보험 등과 보장 중복 개선 권고

광주시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가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실제 보장 활용도가 낮아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단체보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기존 국가 정책에

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해 실질적인 보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2년 ‘군 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광주에 주소를 둔 청년이 입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3000만원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입원 일당 3만원 △골절·화상 진단금 30만원 등 12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이 이미 국방부 단체상해보험이나 군 위탁 치료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과도 일부 보장 범위가 겹치면서 제도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복 논란을 단순히 ‘축소·폐지’의 근거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국가·지자체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빈틈을 보완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군 장병들이 겪는 사고·질병 중에는 국방부 단체보험에서 제외되거나, 군 내부 치료 체계로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한다.

예컨대 군 복무 중 발생하지만 ‘직접적인 군 사고’로 분류되기 어려운 생활·여가 중 상해, 정신적 고충이나 스트레스 질환,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비용 등은 제

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급 실적은 △2023년 49명(110건·7037만원) △2024년 135명(313건·1억6336만원) △올해 11월 기준 132명(316건·1억4737만원)이다.

수혜율은 낮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장병 복지 사각지대를 더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장병 A씨는 “중복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줄이기보다는 기존 국가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해 실질적인 보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